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2년 1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7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1년 12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60,730	18.3	61,183	37.1	-453
일본 부분	2,711	16.2	5,131	8.9	-2,420
일본 비중	4.5		8.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2월 상황

	2020년 12월	2021년 12월	증감률
수출(백만¥, %)	6,706,534	7,881,278	17.5
수입(백만¥, %)	5,998,254	8,464,606	41.1
수지(백만¥, %)	708,280	-583,328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9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7,946	6,338	4,743	1,750	13,744	2,887
한국 부분(억¥)	-8	117	108	88	34	169
한국 비중(%)	-	1.8	2.3	5.0	0.2	5.9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1월 9일, 12월 8일, 2022년 1월 12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2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12월	2021년12월	증감률		2020년12월	2021년12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2,344	90,150	44.6	전체	58,673	12,100	-79.4
방한 일본인	951	1,007	5.9	방일 한국인	2,808	1,100	-60.8
일본인 비중	1.53	1.12		한국인 비중	4.79	9.09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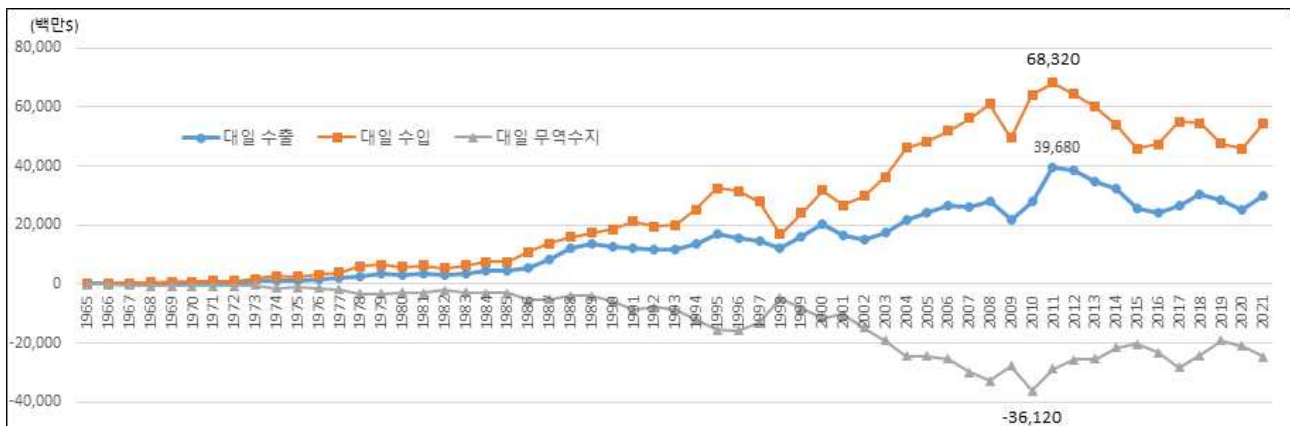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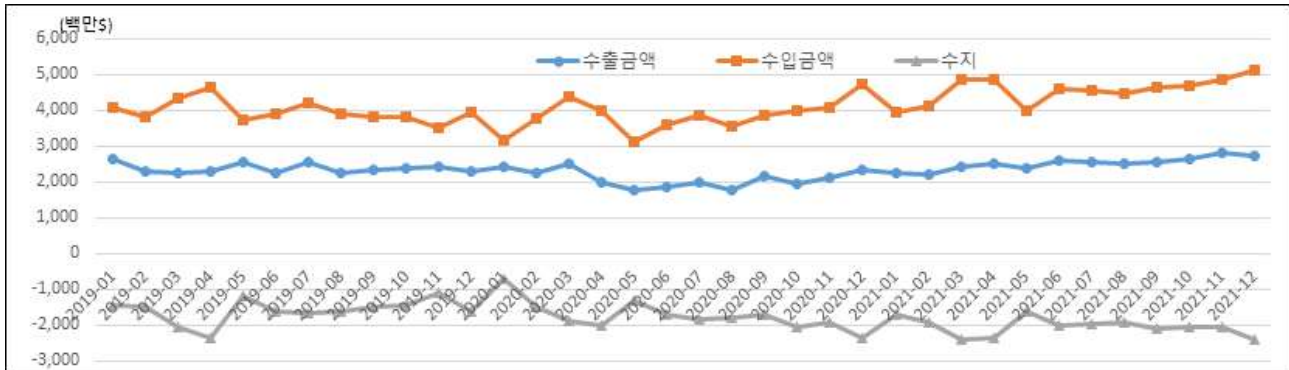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2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6.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2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1년에는 대일 수출(300.6억 달러)과 수입(546.4억 달러)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보다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245.7억 달러)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1년 12월에는 수출 수입 모두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2월에는 전월대비 약간 감소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2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2월에는 전월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1년 12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1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6.2%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8.9%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12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60,730	18.3	61,183	37.1	-453
일본 부분	2,711	16.2	5,131	8.9	-2,420
일본 비중	4.5		8.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12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8.3% 증가하여 607.3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16.2% 증가하여 27.1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12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37.1% 증가하여 611.8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8.9% 증가하여 51.3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12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4.5억 달러 적자였고, 대일 무역수지는 24.2억 달러 적자였음
 - 2021년 12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5%였고, 수입 경우는 8.4%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12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8개 품목이, 수입 경우는 6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1년 12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12월(백만\$, %)			2021년 12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332	1.6	-2,379	2,711	16.2	-2,420
1	광물성연료	332	-19.6	283	468	41.1	415
2	철강제품	291	-0.9	-117	403	38.7	-291
3	정밀화학제품	201	18.3	-213	253	25.9	-175
4	전자부품	142	-10.7	-477	192	35.3	-635
5	석유화학제품	103	-5.5	-215	162	57.6	-183
6	금속광물	129	34.0	35	147	14.3	75
7	산업용전자제품	144	4.9	-147	129	-10.6	-142
8	농산물	97	2.1	74	100	3.7	75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80	1.0	-43	73	-9.3	-51
10	산업기계	70	-2.7	-81	70	0.7	-97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1년 12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12월(백만\$, %)			2021년 12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4,710	20.0	-2,379	5,131	8.9	-2,420
1	전자부품	618	13.8	-477	827	33.7	-635
2	철강제품	407	-13.4	-117	694	70.4	-291
3	정밀기계	699	151.8	-647	600	-14.2	-540
4	정밀화학제품	414	4.9	-213	428	3.3	-175
5	석유화학제품	317	19.1	-215	345	8.9	-183
6	산업용전자제품	291	16.7	-147	271	-6.8	-142
7	플라스틱제품	239	20.6	-176	240	0.5	-178
8	기초산업기계	256	20.1	-173	227	-11.4	-168
9	수송기계	233	11.5	-167	194	-16.7	-144
10	산업기계	151	-10.3	-81	167	10.8	-97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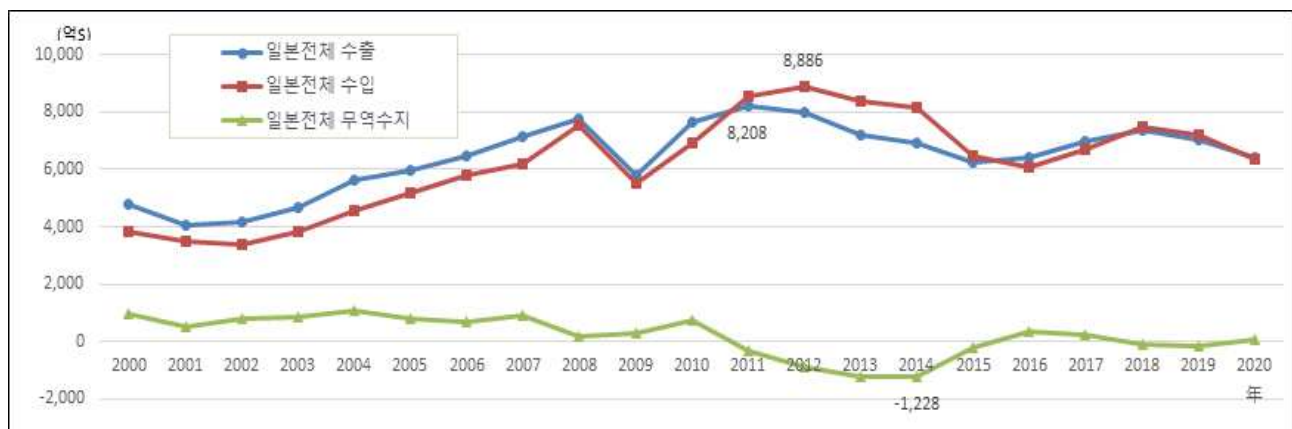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57.6%), 광물성연료(41.1%), 철강제품(38.7%)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산업용전자제품(-10.6%), 기계요소공구및금형(-9.3%)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철강제품(70.4%), 전자부품(33.7%) 등 6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수송기계(-16.7%), 정밀기계(-14.2%) 등 4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4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흑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2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흑자에서 당월 적자로 전환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2월 상황

	2020년 12월	2021년 12월	증감률
수출(백만¥, %)	6,706,534	7,881,278	17.5
수입(백만¥, %)	5,998,254	8,464,606	41.1
수지(백만¥, %)	708,280	-583,328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등전자부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하여 7조 8,813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1.1% 증가하여 8조 4,646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7,083억 엔 흑자에서 당월 5,833억 엔 적자로 전환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2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7.9%, 수입의 46.3%를 차지하였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6,441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1.9%, 수입의 22.4%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1,720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5%,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467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4%, 수입의 4.4%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2,149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0%, 수입의 4.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2,092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8.8%, 수입의 9.7%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6,610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5%, 수입의 2.8%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3%, 수입의 0.8%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2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7,881,278	100.0	17.5	8,464,606	100.0	41.1	-583,328	-
아시아	4,566,737	57.9	16.6	3,922,590	46.3	27.6	644,147	-23.4
중국	1,724,972	21.9	10.8	1,897,002	22.4	20.5	-172,030	867.7
홍콩	358,554	4.5	8.8	11,859	0.1	4.8	346,695	9.0
대만	583,800	7.4	31.6	368,949	4.4	55.1	214,851	4.4
대한민국	552,789	7.0	13.7	343,541	4.1	29.6	209,248	-5.4
싱가포르	196,032	2.5	10.5	91,840	1.1	35.8	104,192	-5.1
태국	311,982	4.0	14.0	256,268	3.0	10.8	55,714	31.5
말레이시아	161,635	2.1	19.6	235,314	2.8	52.4	-73,679	281.7
인도네시아	146,736	1.9	75.7	231,090	2.7	46.9	-84,354	14.3
필리핀	112,806	1.4	29.9	104,550	1.2	19.6	8,256	-
베트남	209,502	2.7	18.5	243,365	2.9	21.2	-33,863	40.8
인도	125,871	1.6	13.6	67,972	0.8	83.5	57,899	-21.5
대양주	210,316	2.7	48.4	798,863	9.4	104.0	-588,547	135.6
호주	168,863	2.1	52.4	705,040	8.3	95.7	-536,177	115.0
뉴질랜드	32,200	0.4	47.8	24,936	0.3	39.4	7,264	86.7
북미	1,559,690	19.8	21.0	948,487	11.2	39.4	611,203	0.4
미국	1,480,814	18.8	22.1	819,808	9.7	39.6	661,006	5.7
캐나다	78,874	1.0	3.5	127,941	1.5	39.1	-49,067	210.7
중남미	278,068	3.5	30.6	364,412	4.3	37.0	-86,344	62.2
서유럽	790,190	10.0	8.7	938,704	11.1	13.1	-148,514	44.1
독일	200,480	2.5	15.3	236,092	2.8	14.1	-35,612	7.5
영국	99,993	1.3	-0.4	64,693	0.8	0.7	35,300	-2.5
프랑스	64,467	0.8	7.3	120,607	1.4	4.2	-56,140	0.8
네덜란드	125,052	1.6	1.2	28,519	0.3	-45.8	96,533	36.0
이탈리아	49,846	0.6	19.0	124,624	1.5	25.5	-74,778	30.2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69,867	2.2	15.6	260,679	3.1	54.1	-90,812	309.4
중동	196,474	2.5	5.4	1,036,382	12.2	107.4	-839,908	168.1
아프리카	109,936	1.4	26.0	194,485	2.3	124.6	-84,549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2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입의 수송용기기 1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출 수입 양쪽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광물성연료(84.2%), 원료별제품(35.5%)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원료별제품(3.7%), 일반기계(3.5%), 전기기기(2.8%), 기타(2.3%)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121.9%), 원료별제품(49.0%), 원료품(48.6%)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수송용기기(-6.4%) 1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20.2%), 전기기기(4.6%), 원료별제품(4.5%), 화학제품(4.4%)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2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7,881,278	100.0	17.5	17.5	8,464,606	100.0	41.1	41.1
1 식료품	104,761	1.3	21.3	0.3	717,859	8.5	22.1	2.2
2 원료품	124,452	1.6	12.1	0.2	649,640	7.7	48.6	3.5
3 광물성연료	100,421	1.3	84.2	0.7	2,200,257	26.0	121.9	20.2
4 화학제품	963,949	12.2	15.6	1.9	853,263	10.1	44.4	4.4
5 원료별제품	942,749	12.0	35.5	3.7	823,053	9.7	49.0	4.5
6 일반기계	1,565,440	19.9	17.6	3.5	663,395	7.8	5.7	0.6
7 전기기기	1,463,011	18.6	15.0	2.8	1,326,131	15.7	26.3	4.6
8 수송용기기	1,553,348	19.7	10.2	2.1	278,562	3.3	-6.4	-0.3
9 기타	1,063,146	13.5	16.6	2.3	952,446	11.3	10.3	1.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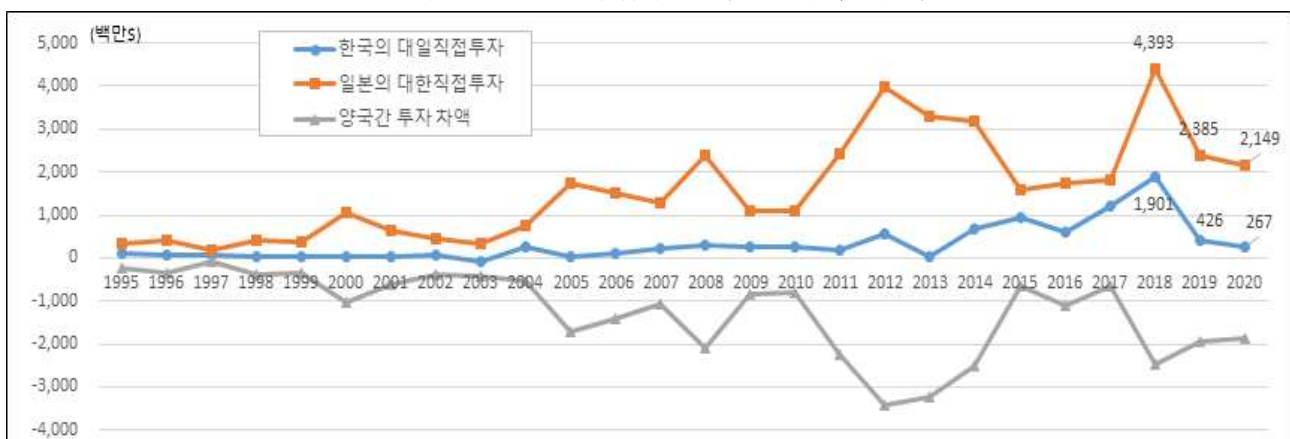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 및 2020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일간 갈등 및 COVID-19가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2.67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659.77억 달러의 0.41%를 차지하였음
- 2020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1.49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711.23억 달러의 1.26%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9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7,946	6,338	4,743	1,750	13,744	2,887
한국 부분(억¥)	-8	117	108	88	34	169
한국 비중(%)	-	1.8	2.3	5.0	0.2	5.9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1월 9일, 12월 8일, 2022년 1월 12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10월 4,743억 엔에서 11월 1조 3,744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10월 108억 엔에서 11월 34억 엔으로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2.3%에서 0.2%로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10월 1,750억 엔에서 11월 2,887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10월 88억 엔에서 11월 169억 엔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5.0%에서 5.9%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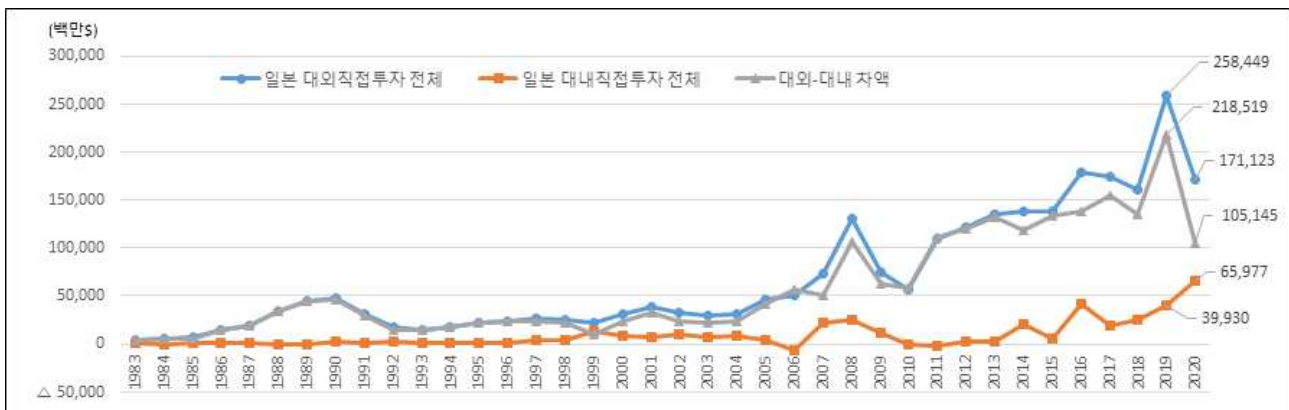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584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99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85억 달러에 달했음
- 한편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711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1,051억 달러로 되었음
- 2020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11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13,744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2,887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3,744억 엔(실행 39,345; 회수 25,601)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47.8%), 아시아(35.0%), 유럽(8.2%), 중남미(7.5%), 대양주(1.4%), 아프리카(0.4%)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중동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6,541억 엔), 인도(2,071억 엔), 중국(1,057억 엔), 싱가포르(972억 엔) 등에 순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2,887억 엔(실행 29,553; 회수 26,666)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 경우는 지역별로 아시아(55.6%), 북미(21.1%), 유럽(12.7%), 대양주(11.5%)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았으며, 중남미 경우는 순투자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플러스 순투자가 큰 곳은 싱가포르(947억 엔), 스위스(614억 엔), 미국(599억 엔), 네덜란드(515억 엔), 호주(347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1년 11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합계	39,345	25,601	13,744	100.0	29,553	26,666	2,887	100.0
아시아	11,059	6,253	4,806	35.0	7,548	5,943	1,606	55.6
중국	1,589	532	1,057	7.7	983	682	301	10.4
홍콩	385	625	-240	-1.7	873	697	176	6.1
대만	202	109	93	0.7	96	26	70	2.4
한국	136	103	34	0.2	195	27	169	5.9
싱가포르	5,289	4,362	927	6.7	5,335	4,388	947	32.8
태국	422	188	234	1.7	40	107	-67	-2.3
인도네시아	184	117	67	0.5	2	—	2	0.1
말레이시아	182	48	133	1.0	17	11	6	0.2
필리핀	230	57	173	1.3	5	0	4	0.1
베트남	272	41	231	1.7	—	—	—	—
인도	2104	32	2,071	15.1	0	—	0	0.0
북미	15,689	9,118	6,571	47.8	10,259	9,652	608	21.1
미국	15,084	8,543	6,541	47.6	10,251	9,652	599	20.7
캐나다	606	575	31	0.2	8	—	8	0.3
중남미	1,522	495	1,027	7.5	235	259	-24	-0.8
멕시코	252	117	135	1.0	—	3	-3	-0.1
브라질	61	81	-20	-0.1	—	—	—	—
케이만제도	533	61	472	3.4	158	227	-69	-2.4
대양주	286	99	187	1.4	686	356	331	11.5
호주	206	37	170	1.2	701	354	347	12.0
뉴질랜드	69	59	10	0.1	2	—	2	0.1
유럽	10,287	9,153	1,133	8.2	10,822	10,454	367	12.7
독일	2,067	1,909	158	1.1	1,397	1,443	-45	-1.6
영국	1,789	1,399	391	2.8	5,221	5,775	-554	-19.2
프랑스	160	200	-40	-0.3	358	390	-32	-1.1
네덜란드	989	547	442	3.2	1,724	1,208	515	17.8
이탈리아	16	84	-68	-0.5	82	163	-81	-2.8
벨기에	1,593	1,924	-332	-2.4	463	526	-63	-2.2
룩셈부르크	1,876	1,224	652	4.7	38	12	25	0.9
스위스	117	118	-1	0.0	1,237	622	615	21.3
스웨덴	80	72	8	0.1	15	11	4	0.1
스페인	17	19	-1	0.0	122	121	1	0.0
러시아	121	43	78	0.6	—	—	—	—
중동	77	116	-39	-0.3	2	2	0	0.0
아프리카	425	367	58	0.4	0	—	0	0.0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1월 12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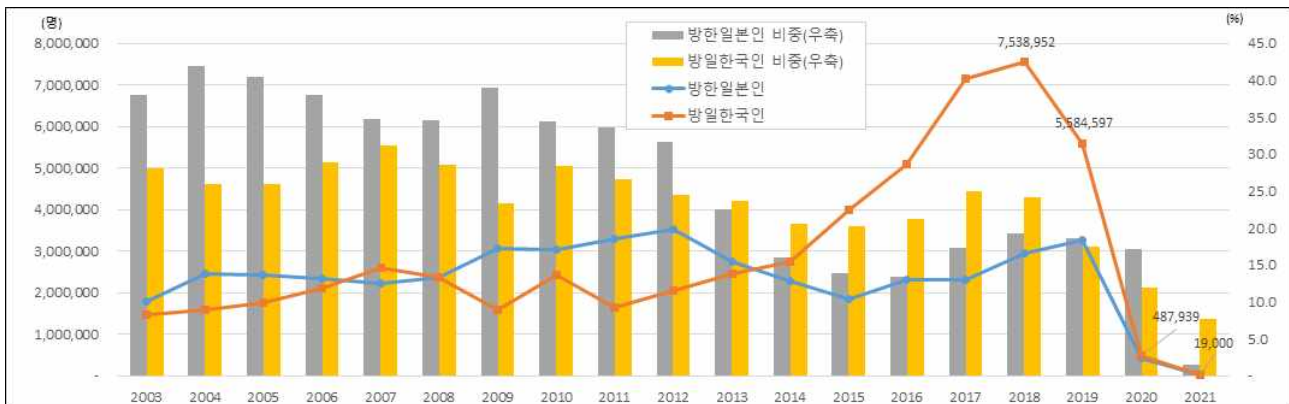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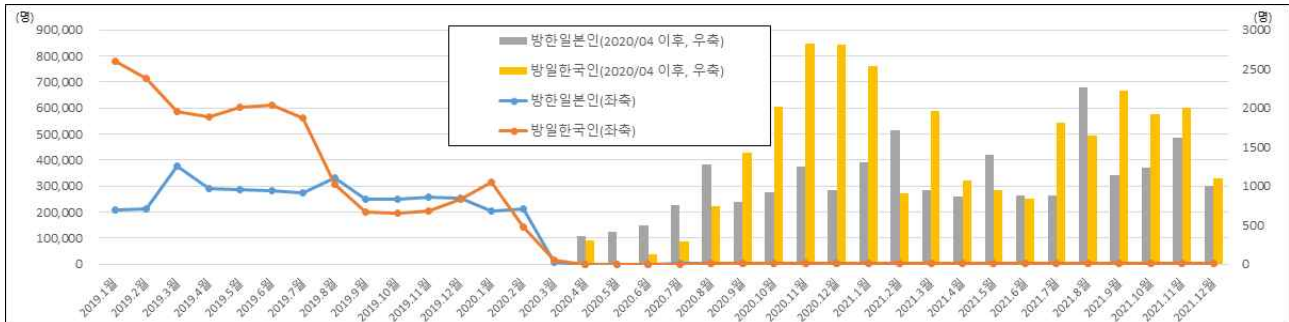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327.2만 명에 달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약 43.1만 명으로, 2021년에는 1.5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9년 18.7%, 2020년 17.1%에서 2021년에는 1.6%로 감소하였음(방한외국인 총수는 2019년 1,750.3만 명, 2020년 251.9만 명, 2021년 96.7만 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3.9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감소하여 558.5만 명이 되었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48.8만 명, 2021년에 1.9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방일외국인 총수의 증가에 기인), 2019년 17.5%에서 2020년 11.9%, 2021년에는 7.7%로 감소하였음(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3,188.2만 명, 2020년 411.6만 명, 2021년 24.6만 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10월 1,237명, 11월 1,623명, 12월 1,007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47명, 9월 2,224명, 10월 1,921명, 11월 2,000명, 12월 1,1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2월 상황

- <표9>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방한 일본인은 증가한 반면, 방일 한국인은 감소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2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12월	2021년12월	증감률		2020년12월	2021년12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2,344	90,150	44.6	전체	58,673	12,100	-79.4
방한 일본인	951	1,007	5.9	방일 한국인	2,808	1,100	-60.8
일본인 비중	1.53	1.12		한국인 비중	4.79	9.09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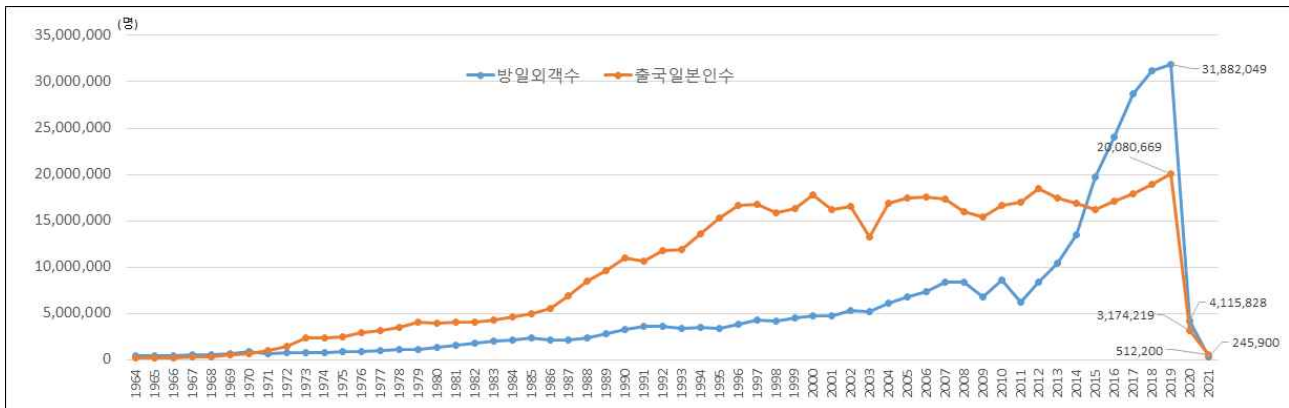
- 2021년 12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90,15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6%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00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0년 12월 1.53%에서 2021년 12월 1.12%로 감소하였음
- 2021년 12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2,1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9.4%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1,1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8%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0년 12월 4.79%에서 2021년 12월 9.09%로 증가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20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부터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방일외객수는 2020년 411.6만 명, 2021년 24.6만 명으로, 출국일본인수는 2020년 317.4만 명, 2021년 51.2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12월 상황

- <표10>은 2021년 12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체 수가 COVID-19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도 감소하였음
- 2021년 12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12,100명으로 전년동월(2,526,387명)대비 99.5% 감소하였고, 전년동월(58,673명)대비 79.4% 감소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1,100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60.8% 감소한 수치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1,800명으로 전체의 14.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0.2%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300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69.2%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70명으로 전체의 0.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75.6%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300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8.1%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인 수는 1,200명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26.3%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1,000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25.8% 감소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12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12월		2020년 12월		2021년 12월		전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전체	2,526,387	100.0	58,673	100.0	12,100	100.0	-99.5	-79.4
한국	247,959	9.8	2,808	4.8	1,100	9.1	-99.6	-60.8
중국	710,234	28.1	18,365	31.3	1,800	14.9	-99.7	-90.2
대만	348,269	13.8	975	1.7	300	2.5	-99.9	-69.2
홍콩	249,642	9.9	287	0.5	70	0.6	-100.0	-75.6
태국	164,936	6.5	683	1.2	200	1.7	-99.9	-70.7
싱가포르	100,376	4.0	121	0.2	50	0.4	-100.0	-58.7
말레이시아	78,250	3.1	300	0.5	60	0.5	-99.9	-80.0
인도네시아	59,203	2.3	3,322	5.7	300	2.5	-99.5	-91.0
필리핀	81,542	3.2	2,319	4.0	200	1.7	-99.8	-91.4
베트남	30,606	1.2	15,713	26.8	300	2.5	-99.0	-98.1
인도	11,739	0.5	1,628	2.8	1,200	9.9	-89.8	-26.3
호주	72,653	2.9	164	0.3	100	0.8	-99.9	-39.0
미국	144,498	5.7	1,348	2.3	1,000	8.3	-99.3	-25.8
캐나다	35,132	1.4	183	0.3	100	0.8	-99.7	-45.4
멕시코	6,499	0.3	49	0.1	40	0.3	-99.4	-18.4
영국	27,750	1.1	353	0.6	200	1.7	-99.3	-43.3
프랑스	20,261	0.8	449	0.8	200	1.7	-99.0	-55.5
독일	13,639	0.5	296	0.5	100	0.8	-99.3	-66.2
이탈리아	11,196	0.4	153	0.3	70	0.6	-99.4	-54.2
러시아	8,833	0.3	389	0.7	80	0.7	-99.1	-79.4
스페인	7,295	0.3	134	0.2	60	0.5	-99.2	-55.2
중동지역	5,554	0.2	104	0.2	90	0.7	-98.4	-13.5
기타	90,321	3.6	8,530	14.5	4,480	37.0	-95.0	-47.5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Ⅳ.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12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1월 18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4-6월	2021년 7-9월	2021년 10-12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2	-4.5	7.3	1.2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0.6	-1.9	2.6	1.8		1.2	0.5	-0.9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5.8	-9.5	22.7	21.1		16.5	10.1	P 10.7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0.5 -4.0	81.5 -9.9	87.5 8.1	87.6 7.2		84.5 4.3	89.2 10.4	84.8 3.7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0.1	5.5	11.6	-9.3		-13.3	-14.9	-14.1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4.3 -1.1	-11.7 -6.4	34.4 5.1	13.6 7.9		3.2 7.5	-2.6 -3.0	4.7 P 6.1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3.0	-10.4	19.9	5.8		-2.3	-4.1	P 5.4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5	-27.3	93.9	35.1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8,383 1.7	7,773 -7.2	1,490 -18.8	1,447 -28.4	1,539 -12.1	505 -10.6	525 -15.8	510 -10.3	504 -9.6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3	2.8	2.9	2.8		2.8	2.7	2.8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0.2 0.5	-1.2 0.0	4.6 -0.8	6.1 -0.2	P 8.7	6.5 0.2	8.3 0.1	9.2 0.6	P 8.5
<금융> 닛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21,697 108.99	22,705 106.73	28,983 109.50	28,553 110.09	28,810 113.70	29,893 110.17	28,586 113.10	29,370 114.13	28,514 113.87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11월, 12월, 2022년 1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가계조사’ (11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1.2% 감소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11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1.2% 증가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합권내로 되어 있고, 소비자 심리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가전판매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여행은 회복되고 있음
- 외식은 최근 회복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을 계속해 가는 가운데,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회복에 답보 상태가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7-9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민간설비투자는 2021년 7-9월기에 전기대비 2.6%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대비 1.7% 감소, 비제조업이 전기대비 3.0% 감소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12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1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이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회복 쪽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건설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의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분양주택 착공은 최근 약세임
- 총 호수는 11월에 전월대비 4.9% 감소하여 연율 84.8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분간 보합 상태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약해지고 있음
 - 10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1.0% 감소, 12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0.4% 증가, 11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2.0% 증가하였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차 보정예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수입은 약세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약세, 아메리카 및 EU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 기타 지역 쪽 수출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11월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9.2% 감소하였음
 - 수입은 약세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약세, 아메리카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되어 있는데, 11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 증가로 흑자로 전환하였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되었음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11월에 전월대비 7.2%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11월에 전월 대비 1.7% 증가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12월은 전월대비 1.6% 증가, 1월은 전월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되고 있고, 생산용 기계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자부품·디바이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 동향 및 공급 측면의 제약에 따른 하향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 관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차 산업 활동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 있는 가운데 비제조업의 일부에서 약세가 보이지만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도산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법인기업통계계보(7-9월기)에 따르면, 2021년 7-9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35.1% 증가, 전기대비 7.4% 감소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11월 510건 이후 12월 504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약세로 움직이고 있지만, 구인 등에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11월에 전월대비 0.1% 포인트 상승하여 2.8%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완전실업자 수는 증가하였고, 취업자 수는 보합 상태임
 - 고용자 수는 보합권내에 있으며, 신규구인 수는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유효구인배율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제조업 잔업시간은 감소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은 최근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음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일일 유효구인건수나 민간의 구인 동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됨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최근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12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2% 하락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최근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기조를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12월에는 전월대비 0.9% 포인트 상승하여 88.5%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당분간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 후 하락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저 후 엔고 방향으로 추이하였음
 - 주가는 28,500엔대에서 29,300엔대로 상승하였다가 28,100엔대까지 하락함
 - 엔/달러 환율은 114엔대에서 116엔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한 이후에 114엔대까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2%대에서 -0.00%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0.5%(12월) 증가하였음
 - 머니트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8.3%(12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3.7%(12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2년 1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1월 18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노력함
- COVID-19 감염증에 대해서는 3개 현을 대상으로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음(참고: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전국으로 확대됨)
 - 또한 감염의 재확대를 상정하여 확보한 의료제공 체제를 확실히 가동시키는 것과 더불어 해외유입 대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 검사, 조기치료의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함
 - 백신에 대해서는 의료관계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접종을 앞당기는 것을 가속화하는 것과 더불어 3월 이후에는 일반인 대상 접종도 앞당기는 등, 경제사회 활동을 최대한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안전·안심을 확보해 나감
- 나아가 경기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당장의 경제가 지탱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감염이 재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활과 고용 및 사업을 지켜내고 경제의 바닥 갈라짐을 방지함

-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동시키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여 경제를 자율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음
-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및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 (11월 19일 각의 결정)을 구체화하는 2021년도 보정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과 더불어, 2022년도 예산 및 관련법안의 조기성립에 노력함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 참고: 2022년 1월 31일 현재 만연방지등중점조치(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 상황

실시기간	실시구역
2022년 1월 9일 ~ 2022년 2월 22일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오키나와현
2022년 1월 21일 ~ 2022년 2월 13일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니이가타현,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가가와현, 나가사카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2022년 1월 27일 ~ 2022년 2월 20일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이시카와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호쿠오카현, 사가현, 오이타현, 가고시마현

출처: 내각관방 홈페이지(<https://corona.go.jp/emergency/>)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정부 대외 정책 및 공급망 강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표
 - 한중일, ASEAN 가맹국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RCEP이 1월 1일 발효되었음

- 15개국 중 1월 1일 발효된 국가는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 모두 10개국이며, 한국의 경우 2월 1일에 발효하게 됨
 - 이로써 참가국 전체의 90% 이상 품목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고 GDP 합계가 전 세계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이 탄생하였음
 - 동아시아의 주요 3개국인 한국, 일본, 중국이 포함된 첫 포괄적경제협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 품목 기준으로 본 관세철폐율은 약 91%로 중국 및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는 자동차용의 핵심 부품 등을 중심으로 관세가 철폐됨
- 반도체산업 관련 정책 및 중요물자 국산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 일본정부는 반도체 국내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등전문학교에서의 전문 인재 육성에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22년 중 큐슈에 있는 8개의 고등전문학교를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와 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함
 - 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 졸업 후에 원칙적으로 5년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일반과목에 더해서 기계, 전자, 화학 등의 전문과목이 있으며 실험과 실습을 중시한 교육내용이 특징임
 - 일본은 반도체 국내수요의 60%를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디지털화의 진전 등으로 향후에도 반도체의 세계적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반도체 공장의 국내정비를 지원하는 법정비를 추진하는 등 반도체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세계 각지에서 희토류의 조달망을 재점검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음
 - 2010년 중국 어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로,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일시정지한 이후로 일본은 광석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해왔으나, 디스프로슘 등을 광석에서 분리 정제하는 공장은 지금도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음
 - 중국의 공급 중단 리스크 및 COVID-19에 따른 공급망 혼란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중요 물자의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은 2021년 12월에 성립한 2021년도 보정 예산에서 반도체의 국내 생산 등의 지원에 예전에는 없었던 큰 금액을 투입하는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음
- 축전지 관련 일본정부 정책
- 경제산업성은 1월 21일 축전지의 제조 규정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었으며, 재이용의 구조나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효과 가스의 산정 방법에 더해 부품 공급망 상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준 제정을 목표로 함

- 재생 가능 에너지나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축전지는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열쇠로 재이용에 관해서는 축전지를 제조할 때 사용이 끝난 제품에서 추출한 리튬 등 희소금속의 재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함
- 또한, 축전지의 제조나 폐기 과정에서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산정이나 표시 방법에 대해 명확히 함
- 경제산업성의 의하면 축전지의 세계적인 수요는 2030년에 2019년의 16배까지 확대 될 전망으로 구미는 벌써 축전지를 둘러싼 규정 정비에 힘을 쏟고 있음
- 한편,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송전회사는 축전지를 송전망에 연결할 의무가 생기게 됨
- 이번 국회에서 전기사업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현행법은 화력이나 재생 에너지 등 발전 설비를 송전망에 연결하는 것을 송전망을 가지는 전력 대기업에 의무화 하고 있으며 새롭게 축전지를 더함
- 향후에는 전력회사로부터 독립한 사업자들에 의한 축전기 비즈니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요미우리신문, 2022.01.03., 2022.01.22.; 닛케이신문, 2022.01.05., 2022.01.27.; 산케이신문, 2022.01.01.)

□ 일본정부의 탈탄소 정책

○ 탈탄소 기술 개발 지원

- 일본정부는 2050년 탈탄소 목표의 실현을 위해 유전자 조작을 가한 미생물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되는 특정 화학물질을 주입함으로써 연료와 바이오 플라스틱 등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는 합성생물 기술의 실용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 회수한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는 다양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균인 수소 세균에 유전자 조작을 가해 가장 효율적으로 연료, 섬유, 플라스틱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은 오랜 세월 간장이나 술 등 미생물에 의한 발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회수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자원을 생산하는 기술개발이 구현될 수 있으면 온난화 대책과 자원을 생산하는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한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천연가스에서 액화천연가스(LNG)나 수소같은 연료를 만들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안을 마련하였음

- 수소나 암모니아는 연소할 때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기대되지만, 원료인 천연가스나 석탄으로부터 수소 등을 만들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현시점에서는 표준적인 산정법이 없어 제조에서 소비까지의 공정 전체의 환경 부하를 알기가 어려웠음
- 지침안의 마련으로 수소나 암모니아를 구입하는 기업은 환경 부하가 명확해진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산업계나 소비자 시점에서의 탈탄소 정책 및 탈탄소에 대한 일본 기업의 대응
 - 일본 정부는 1월 18일 탈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는 ‘클린 에너지 전략’의 책정을 위해 관계 각료와 지식인에 의한 회의를 총리관저에서 열었음
 - 6월에 정리하는 클린 에너지 전략은 에너지의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기존의 전략에서는 산업계나 소비자의 시점이 부족했음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급 측에 더하여 수요 측의 산업구조 전환이나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 지역의 탈탄소화,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등에 방향성을 내도록 지시하였음
 - 2050년까지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NHK가 국내 주요 기업 100사에 대해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달성할 수 있다는 응답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탈탄소 움직임이 진행된 데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탈탄소를 위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상품을 선택할 때 환경을 의식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자유 응답으로는 코스트의 증가 외에도 탈탄소 관련 비즈니스 기회 증가나 자사의 탈탄소 관련 기술로 주목을 받았다는 등의 응답도 있었음

(출처: 산케이신문, 2022.01.02., 2022.01.18.; 닛케이신문, 2022.01.19., 2022.01.23.; NHK, 2022.01.28.)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활발해지는 사업 재편과 전력산업 동향

- 탈탄소 흐름 및 COVID-19로 인한 사업 재편, 주3일 휴일제 주목
 - 2021년 일본 기업이 참여한 M&A 건수는 4,280건(속보치)으로 과거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과 COVID-19 감염 확대로 사업의 재편이 활발해지고 있음
 - 탈탄소가 키워드가 되어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매수하고 석탄화력발전이나 탄광개발로부터의 철수를 피하는 등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코로나 재난의 영향으로는 음식과 여행업 등에서의 재편이 펼쳐지고 있음
 - 탈탄소 흐름에 따라 기업이 사업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은 구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기업 석유회사 등은 주주와 환경단체의 요망으로 화석연료 관련 사업을 매각하고 자금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기 시작했음
 - 한편, 종업원에게 주휴 3일을 인정하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목적은 다양하며 육아나 개호와의 양립 지원, 부업이나 자기계발 시간 확보를 통한 종업원의 스킬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최대의 우려는 인건비 삭감의 방편에 사용되는 것인데, 선행 도입한 기업에서도 급여를 20% 정도 낮춘 경우가 많다고 함
 - 또한, 대응하기 쉬운 IT 관련이나 기획 부문 등과 달리, 제조 현장에서는 인원 확보와 디지털 투자 등에 의한 효율화가 주휴 3일제의 전제가 됨
- 전력 대기업의 해외 사업 강화와 정부 지원
 - 일본의 대형 전력회사들이 해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쌓은 발전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수익을 늘리는 것이 목적임
 - 중부전력은 2020년 매수한 네덜란드 전력 대기업 ‘에네코’를 통해 해외에서 재생 가능에너지 발전 및 소매, 신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독일 및 영국의 해저 송전선 사업, 베트남의 수력·재생에너지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 등 많은 해외 안전에 참여, 착수하고 있음
 - 간사이전력도 해외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사업에 힘을 써서 풍차를 바다에 띄우는 ‘부채식’ 해상풍력 발전 등 신기술의 이전 활용도 검토하며 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의 3곳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감

- 큐슈전력은 해외 발전설비 지분의 출력을 2030년도에 2020년도 실적의 약 2배가 되는 500만 킬로와트까지 높일 계획임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해외의 지열 발전사업에 진출하기 쉽도록 자금지원 제도를 신설할 방침임

(출처: 아사히신문, 2021.01.03.; 마이니치신문, 2022.01.17.; 산케이신문, 2022.01.19.)

□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

- 반도체 부족 문제 및 일본의 반도체산업
 - 반도체는 모든 전자 기기에 사용되어 ‘산업의 쌀’ 이라고 불리는데,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의 분단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상 중요한 물자가 되었음
 - 반도체 기판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의 수급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
 - 웨이퍼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약 3할을 차지하는 SUMCO의 하시모토 마사유키(橋本真幸) 회장겸 CEO는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데이터의 통신량이나 처리 건수 급증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신설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더해 COVID-19로 인한 텔레워크의 보급 등을 들었음
 - 한편, 반도체 대기업인 대만적체전로제조(TSMC)의 일본 진출이 정해졌는데, 이는 일본정부의 보조금이 뒷받침된 것으로 일본에서 제조하는 것은 범용형임
 - TSMC는 타사가 설계한 반도체의 제조를 위탁하는 ‘파운드리(수탁제조)’ 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 반도체 업계에서 설계와 제조를 분업하는 조류를 만들었음
 - 미국 반도체공업회(S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10 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제조 거점의 92%는 대만, 8%는 한국에 있다고 함
 -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후반 세계 상위 10사에 NEC, 도시바, 히타치 등 6사가 이름을 올리고 일본세의 점유율이 50%를 차지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설계부터 제조까지 자사에서 다루는 과거의 성공 모델을 고집한 일본세는 설계와 제조를 분업하는 세계의 흐름에 뒤떨어져, 지금은 세계 점유율이 10% 이하이며 국내 수요의 60% 이상을 대만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EV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변화
 - 미국에서 열리는 테크놀로지 박람회 CES에서는 EV와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관련 발표가 쏟아졌음

- EV를 둘러싸고 IT업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자동차메이커 외 기업들의 참가가 잇따르고 있음
- 기존 자동차메이커의 주력 차종의 EV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표명 외에도 테크 기업들과의 제휴도 눈에 띄어 차세대 자동차 비즈니스의 급가속이 선명해졌음
- EV는 부품이 가솔린차의 반 정도로 줄어 진입 장벽이 낮은 반면, 차량 제어나 거주성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여겨짐
- 소니그룹은 SUV 타입 EV를 공개했으며, 올해 봄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본격 참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음
- 세계적인 EV로의 이행에 따라 차재전지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 닛산 자동차와 프랑스 르노, 미쓰비시자동차는 1월 27일 2030년도까지 전지의 생산 능력을 현재의 20배로 높인다고 발표했음
- 2026년도까지 EV 등 전동차 개발에 3사 합해 230억 유로를 투자하며, 2030년도까지 35 차종의 EV를 투입해, 9할의 차종을 공통의 5개의 차대로 생산함
- 일불 연합은 타사에 앞서 EV 판매를 시작했으나, 2016년에 18%였던 EV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국 테슬라 등에 밀려 2021년에 5%까지 떨어졌으며, 3사에서는 전지 등을 공통화해 반격을 하고 있음
- EV의 시장 확대에 대해서 전지의 공급은 따라잡지 못할 전망으로 전지가 EV로의 전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됨
- 자동차 대기업도 전지메이커와의 제휴로 전지 확보를 서두르고 있는데, 토요타자동차는 2030년까지 배터리 증산에 2조 엔을 투입할 예정임

(출처: NHK, 2022.01.05.; 닛케이신문, 2022.01.20., 2022.01.22., 2022.01.27.; 마이니치신문, 2022.01.12.)